

9. 2024. 5. 23. 목 13시까지	10. 2024. 5. 23. 목 13시까지
고향 앞에서 오장환	자화상 윤동주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 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잣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곶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 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1. 2024. 5. 23. 목 13시까지 저녁 한 때 임길택 뒤뜰 어둠 속에 나뭇짐을 부려 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 셨다. 말할 힘조차 없는지 무쪽을 받아 든 채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 환히 드러난 아버지 이마에 흘러난 진땀이 마르지 않고 있었다.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어둠길 가늠하셨겠지. 불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12. 2024. 5. 23. 목 13시까지 산너머 저쪽 정지용 산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빼꾸기 영우에서 한나절 울음 운다. 산너머 저쪽 에는 누가 사나?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찌 르 령! 산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늘 오던 바늘장수도 이봄 들며 아니 뵈네.
--	---